

본 논문은 아래의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정보 (Copyright Policy)

-학술지 발행기관

• 재사용 정보 (CC License)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셀프아카이빙 정보 (Author Self-Archiving)

-Gray : 검토 중 · 비공개 · 무응답 · 기타

• 원문 접근 정보 (Reader Rights)

-이용자 접근정책 : CCL 유형에 따른 재사용 가능

-무료 DB : KCI

중년여성 만학도의 행복찾기: 기질 및 성격 잠재프로파일을 중심으로*

여 정 미 이 수 진†

경성대학교

본 연구는 중년여성 만학도의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잠재계층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기질 및 성격의 조합을 통해 보다 적응적이며 성숙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도출하여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0세-65세의 중년여성 만학도 245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건강인식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 삶의 의미 척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 기질 및 성격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 및 성격 요인을 활용한 잠재프로파일분석을 통해 2개의 잠재집단을 확인하였고, 이를 ‘평균집단’과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심리사회적 변인인 주관적 건강인식,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에서 잠재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여성 만학도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질은 수용하고 성격은 변화하는 관점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기질 및 성격, 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 잠재프로파일 분석

* 본 논문은 여정미(2023)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이수진, 경성대학교 심리학과 부교수, (48434) 부산시 남구 수영로 309

Tel: 051-663-4328, E-mail: leesooj@gmail.com

 Copyright © 2025, The Korean Society for Woman Psycholog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현대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중년기는 가정과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학자들마다 중년기를 정의하는 연령의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연구에서 40~65세를 기준으로 한다(Erikson, 1968). 이 시기는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지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기도 하며, 동시에 인생의 유한성에 직면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Berk, 2009).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40대는 15.17%, 50대는 16.8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통계청, 2024), 이에 따라 은퇴, 사회적 고립, 노후준비 등 중년기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중년여성은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폐경, 신체적 노화, 자녀 성장과 독립, 가정 내 역할 변화, 사회적 활동 등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와 적응을 경험하며,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백복희, 최소영, 2024).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한 삶을 향한 욕구 증가로 인해, 학령기 교육의 기회를 놓쳤던 여성들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김정민, 최연실, 2014).

만학도란 대학 진학 적령기를 초과하여 일반적인 대학생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로,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수의 증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상에 맞물려 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김광수, 2020). 비록 중년여성 만학도들은 학습 과정에서 인지적·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고등교육을 통해 학습의 기쁨을 경험하며 긍정적인 정체성과 행복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근필 등, 2021).

이처럼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의 만족감, 긍정 정서는 중년여성 만학도의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고령화 되어가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중년여성 만학도의 행복을 연구하는 것은 큰 의의를 갖는다.

개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1980년 대부터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감, 삶의 질 등이 대표적인 평가 주제로 다뤄졌으며, 그중에서도 주관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루리, 2015).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상태는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긍정 정서를 자주 경험하고, 부정 정서를 덜 경험하거나 부채하는 상태를 말한다(Diener & Lucas, 1999). 하지만 삶의 만족과 주관적 안녕감을 쾌락과 긍정적 감정으로 동일시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불쾌한 경험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새로운 상황의 한계 안에서도 여전히 만족스럽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이다(Ryff & Keyes, 1995). 이러한 주관적 안녕감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구성되며, 개인의 기질 및 성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Cloninger(1987)는 심리생물학적 인성 모델에 기초하여 기질과 성격의 두 가지 구조로 구분하였다. 기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으로(채한, 이수진, 2022), 전 생애에 걸쳐 안정적인 속성을 보인다. 기질 특성 중 위험회피나 자극추구는 쾌락적 안녕감과 연관되며,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과도 일부 관련이 있다(Cloninger et al., 1998). 그러나 기질 차원 중 자극추구 점수가 높으면 충동적이고 절제에 어려움이 있으며(김윤희, 이수진, 2021), 위험회피 점수가 높으면 처벌이나 위험을 회피하

기 위해서 행동을 억제하며 중지와 관련이 있어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Garcia & Moradi, 2012)고 하였다. Cloninger는 행복의 비정서적 요소로서 건강과 사회적 지지를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요소로 제안하였다. 건강은 행복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건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보고되었다(Subramanian et al., 2005). 특히 중년 및 후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장혜경, 2021)에서는 건강상태가 행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백복희, 2024), 이는 건강과 행복 간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심리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양한 변화와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행복의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된다(Wester et al., 2007).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은 인지적·정서적 행복감을 경험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고 욕구를 충족시켜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최정아, 전혜성, 2020). 삶의 의미는 심리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이는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박선영, 권석만, 2014). Steger(2009)는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은 단순한 만족을 넘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이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의미추구가 의미발견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삶에 덜 만족하게 되어 심리적 고통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정주리, 이기

학, 2007; Steger et al., 2006). 특히 중년후기 발달단계로 접어들수록,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삶에서 진정한 행복과 만족(박선영, 권석만, 2012; 권은주, 장재혁, 2018)을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행복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외부적인 환경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격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DeNeve & Copper, 1998). 성격은 기질에 의해 일어나는 자동적인 정서반응을 조절하며(채한, 이수진, 2022), 주관적 안녕감 증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성격 차원의 조합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율성이 높은 점수로 분류된 경우, 낮은 점수 집단에 비해 주관적 안녕감에서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으며(Cloninger & Zohar, 2011; Josefsson et al., 2011), 높은 자율성과 연대감의 조합에서는 부정정서를 감소시키고,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높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arcia et al., 2017). 성격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자율성과 연대감이 높은 집단은 주관적 안녕감 수준이 높아 적응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는 동일한 기질, 예를 들면 위험회피가 높은 개인 중 자율성과 연대감 수준이 높은 경우, 불안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적응적인 행동 특성을 나타내지만, 성격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불안과 회피적 경향이 강화되어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적응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자극추구가 높은 개인도 성격 성

숙이 높으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긍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으나, 성숙도가 낮을 경우 충동성과 계획 부족으로 인한 부적응적 행동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자극추구와 위험회피가 높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성격 차원의 성숙에 따라 다른 행동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성격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이나 정신건강과 같은 결과 변수 간의 관계가 단순한 선형적 양상이 아니라 보다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Josefsson et al.,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 만학도를 대상으로 사람중심 접근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비정서적(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측면과 성격 특성의 특정 조합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행복이 단순히 외부 변인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성격의 성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관계는 변인중심의 접근보다는 사람중심의 접근에서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통합적인 자기개념의 틀 안에서 이해할 때 보다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질 및 성격의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이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둘째, 기질 및 성격의 잠재집단에 따른 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거주하는 2~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40세에서 65세의 중년여성 만학도를 대상으로 편의표집에 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설문은 2022년 5월 2일부터 6월 3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총 260부의 자료 중 결측치가 있는 자료 5부를 제외하고 245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령대별로는 50세-59세가 107명(43.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세-65세가 88명(35.9%), 40세-49세가 50명(20.4%)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1명(6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학년 62명(25.3%), 3학년 12명(4.9%) 순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400만원 이상이 80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각된 생활수준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183명(7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낮다’ 33명(13.5%), ‘높다’ 25명(10.2%), ‘매우 낮다’ 4명(1.6%)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KSU-22-03-002).

측정도구

기질 및 성격검사

Goth 등(2003)이 TCI 개정판(TCI-R)을 단축형 총 1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국내에서는 민병배 등(2007)이 표준화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7개의 차원으로 4개의 기질차원은 자극추구,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으로 구성되며, 3개의 성격차원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로 구

성되어 있다. 문항의 응답범주는 ‘그렇지 않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3~.90이었다.

주관적 건강인식 척도

주관적 건강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단일문항으로 구성된 건강에 대해 내리는 주관적 평가를 사용하였다(최요한, 2018).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응답 범주는 ‘매우 좋지 않다’(1점)부터 ‘매우 좋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주관적 건강인식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Zimet 등(1988)이 개발하고 신준섭과 이영분(1999)이 변안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 다차원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가족지지(4문항), 친구지지(4문항), 특별한 사람지지(4문항)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전체 .92이었다.

삶의 의미 척도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Steger 등(2004)이 개발한 것을 원두리 등(2005)이 변안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의미추구, 의미발견이라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언제나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의미추구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며, 의미발견 점수가 높을수록 많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2이었다.

단축형 행복 척도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구재선과 서은국(2011)의 ‘단축형 행복 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요소인 삶의 만족, 긍정정서, 부정정서 각 3문항씩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만족감인 개인적 성취, 성격,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와 같은 관계적 만족감, 내가 속한 학교나 지역사회와 같은 집단적 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다. 긍정정서는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의 3가지 문항이고, 부정정서는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의 3가지 문항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 점수의 산출은 Diener(1994)의 방식에 따라 ‘삶의 만족도+긍정 정서-부정 정서’로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위해 SPSS 2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질 및 성격 유형에 따른 특징을 비교하기 위해 Mplus 5.21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Sample-sized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사용하여 정보지수를 비교하였다. 엔트로피(Entropy)를 사용하여 분류의 질과 정확성을 판단하였다. 엔트로피의 값은 1에 가까울수록, AIC, BIC, SABIC 값은 작을수록, VMLR, MLR, BLRT의 유의확률이 작을수록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ylund et al., 2007). 마지막으로, 잠재프로파일 유형에 따라 주관

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초통계 및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질 및 성격의 상관관계 분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											
2	.248***	-										
3	.138*	.253***	-									
4	.269***	.289***	.381***	-								
5	.349***	.441***	.244***	.504***	-							
6	.03	-.00	.12	.05	-.03	-						
7	-.33***	-.34***	-.21**	-.42***	-.49***	-0.012	-					
8	.17**	.40***	.24***	.21***	.29***	.147*	-.459***	-				
9	.25***	.27***	.33***	.28**	.35***	.303***	-.411***	.305***	-			
10	.31***	.38***	.17**	.45***	.52***	-.249***	-.778***	.263***	.340***	-		
11	.19**	.41***	.27***	.29***	.35***	-0.106	-.517***	.475***	.406***	.481***	-	
12	.05	.17**	.27***	.27***	.18**	.401**	-0.106	.188**	.459***	-0.021	.243***	-
왜도	-0.22	-0.65	-0.62	-0.62	-0.66	0.48	-0.08	0.2	0.06	0.24	0.43	0.22
첨도	-0.48	0.32	0.03	0.8	0.95	0.11	0.98	0.46	0.77	0.36	0.22	-0.52
M	2.54	45.59	27.31	23.89	17.71	30.9	35.73	44.14	43.59	47.94	57.87	30.89
SD	0.92	7.89	4.55	3.13	5.86	10.02	11.03	7.71	9.46	10.8	9.32	11.64

주: 1. 주관적 건강인식, 2. 사회적 지지, 3. 의미추구, 4. 의미발견, 5. 주관적 안녕감, 6. 자극추구, 7. 위험회피, 8. 사회적민감성, 9. 인내력, 10. 자율성, 11. 연대감, 12. 자기초월
* $p < .05$, ** $p < .01$, *** $p < .001$

첫째, 자극추구는 변인들 간에서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민감성은 주관적 건강인식($r = .17, p < .01$), 사회적 지지($r = .40, p < .001$), 의미추구($r = .24, p < .001$), 의미발견($r = .21, p < .001$), 주관적 안녕감($r = .29,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인내력은 주관적 건강인식($r = .25, p < .001$), 사회적 지지($r = .27, p < .001$), 의미추구($r = .33, p < .001$), 의미발견($r = .28, p < .01$), 주관적 안녕감($r = .35,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반면, 위험회피는 주관적 건강인식($r = -.33, p < .001$), 사회적지지($r = -.34, p < .001$), 의미추구($r = -.21, p < .01$), 의미발견($r = -.42, p < .001$), 주관적 안녕감($r = -.49, p < .0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자율성은 주관적 건강인식($r = .31, p < .001$), 사회적 지지($r = .38, p < .001$), 의미추구($r = .17, p < .01$), 의미발견($r = .45, p < .001$), 주관적 안녕감($r = .52,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대감은 주관적 건강인식($r = .19, p < .01$), 사회적 지지($r = .41, p < .001$), 의미추구($r = .27, p < .001$), 의미발견($r = .29, p < .001$), 주관적 안녕감($r = .35, p < .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자기초월은 사회적 지지($r = .17, p < .01$), 의미추구($r = .27, p < .001$), 의미발견($r = .27, p < .001$), 주관적 안녕감($r = .18,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기질 및 성격 잠재집단의 수

기질과 성격에 따른 잠재계층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기질 및 성격검사의 원점수를 사용하여 잠재계층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각 모

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기질 및 성격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프로파일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정보지수인 AIC, BIC, SABIC는 감소하였고, Entropy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2개일 때 가장 큰 값을 보였다. 모형비교 검증인 VMLR, MLR와 BLRT 분석을 실시한 결과 MLR, MLR는 잠재프로파일 수가 3개, 4개인 경우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BLRT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개의 프로파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류된 잠재집단의 특성을 탐색하고 각 집단을 명명하기 위해 집단별 구성비율과 표준화된 추정 평균을 확인하고, 기질 및 성격을 비교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기질 및 성격의 수준에 따른 프로파일 그래프는 그림 1과 같다.

기질 및 성격 측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 1에 포함된 대상은 182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74.3%에 해당되었다. 이 집단의 위험회피 수준은 집단 2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수준은 집단 2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위험하거나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및 정서적으로 개방하거나 일정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기보다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수준은 집단 2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따라서 집단 1을 ‘평균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집단 2에 포함된 대상은 63명으로 전체 연구 대상의 25.7%에 해당되었다. 이 집단의 위

표 2. 기질 및 성격의 잠재 프로파일 모형 적합도 비교

분류기준		잠재 프로파일의 수				
		1	2	3	4	5
분류의 질	Entropy	N/A	0.829	0.858	0.810	0.863
정보 준거지수	AIC	15460.912	12488.438	12424.183	12315.964	12304.405
	BIC	15530.937	12575.969	12550.228	12480.523	12507.478
	SABIC	15467.539	12496.721	12436.111	12331.536	12323.622
모형비교 검증	VLMR p	N/A	0.0011	0.7561	0.2555	0.1858
	LMR p	N/A	0.0013	0.7592	0.2616	0.1872
	BLRT p	N/A	0.0000	0.0000	0.0000	0.1765
n (%)	1개	245 (100)	182 (74.18)	21 (8.43)	22 (8.86)	4 (1.65)
	2개		63 (25.82)	180 (73.31)	101 (41.34)	113 (45.98)
	3개			45 (18.26)	70 (28.51)	64 (26.33)
	4개				52 (21.29)	60 (24.38)
	5개					4 (1.66)

주. AIC =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 =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SABIC = Sample-sized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VLMR p = Vuong-Lo-Mendell-Rubin likelihood difference test(p -value); LMR p = Lo-Mendell-Rubin likelihood test(p -value); BLRT p = Parametric 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p -value)

표 3. 잠재 프로파일 분석에 따른 기질 및 성격의 차이(N = 245)

	집단 1	집단 2	t	p
	평균집단 ($n=182$)	적응집단 ($n=63$)		
	$M(SD)$	$M(SD)$		
자극추구	30.70(10.208)	31.48(9.500)	-5.3	.243
위험회피	39.95(8.346)	23.54(8.498)	13.38***	.000
사회적 민감성	41.87(6.467)	50.71(7.274)	-9.06***	.000
인내력	40.71(8.147)	51.90(7.987)	-9.45***	.000
자율성	44.48(8.948)	57.92(9.457)	-10.12***	.000
연대감	54.32(7.009)	68.11(7.423)	-13.25***	.000
자기초월	28.80(10.983)	36.95(11.435)	-5.03***	.000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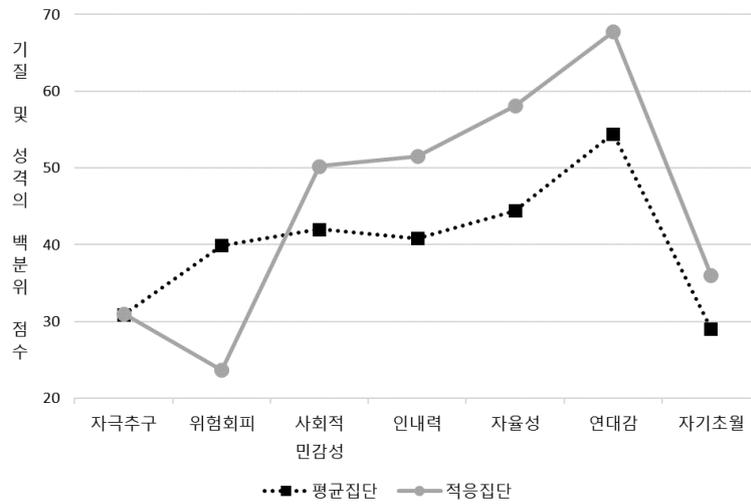


그림 1. 기질 및 성격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2개 잠재 집단

험회피 수준은 집단 1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고,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수준은 집단 1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성격적 성숙을 나타내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수준은 집단 1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집단 2를 ‘적응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기질 및 성격 잠재집단의 변인 차이

기질 및 성격의 잠재 프로파일 유형에 따른

표 4. 기질 및 성격 잠재집단의 변인 차이

	평균집단 (n=182)	적응집단 (n=63)	t	p
	M(SD)	M(SD)		
주관적 건강인식	3.31(0.856)	3.89(0.952)	-4.51***	.001
사회적 지지	44.07(7.769)	49.97(6.506)	-5.40***	.000
가족지지	15.47(3.144)	16.94(2.978)	-3.24**	.002
친구지지	14.10(2.928)	16.19(2.341)	-5.13***	.000
특별한 사람지지	14.52(2.845)	16.65(2.374)	-5.62***	.000
삶의 의미	49.85(6.220)	55.10(5.408)	-5.95***	.000
의미추구	26.60(4.308)	29.37(4.640)	-4.30***	.000
의미발견	23.25(3.096)	25.73(2.464)	-5.75***	.000
주관적 안녕감	16.40(5.529)	21.52(5.105)	-6.47***	.000

** p < .01, *** p < .001

‘평균집단’과 ‘적응집단’의 심리사회적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그 결과, 주관적 건강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t = -4.51, p < .001$). 사회적 지지는 집단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t = -5.40, p < .001$),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서 가족지지($t = -3.24, p < .01$), 친구지지($t = -5.13, p < .001$), 특별한 사람지지($t = -5.62, p < .001$)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삶의 의미는 집단 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t = -5.95, p < .001$), 삶의 의미 하위요인에서 의미추구($t = -4.30, p < .001$)와 의미발견($t = -5.75, p < .001$)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결과를 종합하면, ‘적응집단’이 ‘평균집단’에 비해 심리사회변인(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 만학도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 기질 및 성격의 조합 잠재집단에 따른 정서적(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비정서적(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변인의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질 및 성격의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주요 변인 간 상관 분석한 결과, 위험회피는 모든 변인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특히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 = -.49, p < .001$). 위험회피가 높을수록 처벌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행동을 억제하며 중지와 관련이 있고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성을 보여 주관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Garcia & Moradi, 2012). 이는 행동을 억제하고 예기불안이 높아 다양한 정서와 비정서적 요소를 시도하지 못한 채 익숙한 대처방식으로만 적응하려는 기질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성과 연대감은 모든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자율성은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r = .52, p < .001$)을 보였다. 이는 자기결정성과 타인과의 연결감이 중년여성 만학도의 행복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높은 자율성은 삶에 만족도가 높고, 성숙한 자기개념의 형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Garcia et al., 2017).

반면,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은 모든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이들 성격 특성이 긍정정서, 주관적 건강인식, 사회적 지지 및 삶의 의미 등 전반적인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사회적 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의 공감 능력 및 감수성과 관련되며, 사람중심 접근에서 강조하는 상호연결성에도 부합하는 결과로 선행연구(최정아, 전해성, 2020)를 지지한다. 또한 인내력이 높을수록 부지런하고 성취적이며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어 중년여성 만학도들의 경우, 외부의 개입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끈기와 자신의 삶에 대한 기내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자기초월은 주관적 건강인식을 제외한 모든 변인들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자기초월이 높을수록 자아를 넘어선 의미추구와 같은 이상주의적이고 적응적인 자기망

각 특성이 나타나며, 이는 삶의 의미, 사회적 지지, 긍정정서 등과는 관련되지만, 비현실적 사고 경향으로 인해 신체적 건강 인식과는 다소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기질 및 성격 특성을 기반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하위 집단(적응집단, 평균집단)이 도출되었으며, 자극추구를 제외한 위험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낮은 위험회피와 높은 사회적 민감성 및 인내력 기질, 그리고 높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은 적응집단의 주요 특성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평균집단은 높은 위험회피와 낮은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 자기초월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위험회피는 낮고 자율성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채한, 이수진, 2022; Garcia et al., 2017).

특히 낮은 위험회피와 높은 자율성은 변화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자기조절을 통해 삶의 목표를 주도적으로 추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사회적 관계와 학습 상황에서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학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응집단에서 나타난 높은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 연대감 및 자기초월은 중년여성 만학도에게서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성숙한 인성 특성을 반영하며, 주관적 안녕과 더불어 지속적인 자기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후속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두 집단 간 자극추구 점수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평균집단(30.70점)과 적응집단(31.48점) 모두 TCI 성인 기준집단의 평균점수(25.84점)보다 약 5~6점 높게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중년여성 만학도들이 전반적으로 일반 성인보다 더 높은 자극추구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이 학습과 자기개발이라는 새로운 자극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재적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중년 이후에도 새로운 자극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욕구가 유지되며, 이는 자극추구가 단순한 기질적 요인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와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프로파일 분석으로 분류된 평균집단과 적응집단이 심리사회적 변인(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관적 안녕감을 포함한 모든 심리사회적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적응집단은 평균집단에 비해 심리사회적 변인(주관적 건강, 사회적 지지, 삶의 의미, 주관적 안녕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보고한다(Subramanian et al., 2005). 적응집단은 평균집단에 비해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자율성, 연대감이 높고 위험회피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응집단은 평균집단에 비해 삶의 의미(의미추구, 의미발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년여성 만학도의 경

우 삶의 의미(의미추구, 의미발견)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힌 선행연구(권은주, 장재혁; 2018)와 일치하는 결과로, 자율성, 연대감이 높고 위험회피가 낮을수록 삶의 의미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질 및 성격 프로파일의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적응집단이 보이는 기질 및 성격 특성을 활용하여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주관적 안녕감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을 단순히 긍정정서만이 아니라,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지지, 건강, 삶의 의미 등 비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다면적 개념으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행복을 삶의 전반에 걸쳐 다면적 지표로 조작적 정의하고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를 가진다.

둘째, 기질 및 성격의 조합이 행복과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단순히 개별 심리사회적 변인의 영향만을 살펴보는 접근을 넘어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행복을 탐색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TCI 조합과 행복 간의 관계는 선형적 관계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으며, 동일한 기질이나 성격 점수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특성과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에 따라 행복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가 높은 동시에 자율성이 낮은 경우 심리적 적응이 취약해질 수 있는 반면, 위험회피가 낮고 자율성이 높은 경우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동시에, 성격

특성을 변화 가능한 요소로 이해하고 이를 통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Cloninger & Zohar, 2011). 이러한 관점은 행복이 타고난 기질에 의해 단순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격의 성숙과 발달 과정을 통해 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행복 연구의 새로운 해석과 확장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여성 만학도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양한 연령대 및 교육 형태를 지닌 만학도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추어 연령과 학습 경로가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확장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해석과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수행되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기질, 성격, 그리고 심리사회적 변인 간의 시간적 인과관계와 변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기질 및 성격의 프로파일 유형을 통해 잠재집단을 탐색하였으나, 연구 표본이 크기가 충분하지 않아 2개의 집단만이 도출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표본수가 적을 경우 잠재집단이 실제보다 과소 또는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질 및 성격 조합과 다양한 심리사회적 변인이 연령별 행복에 미치는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인성 개발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중년여성 만학도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과 평생학습 과정에서의 심리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권은주, 장재혁 (2018). 만학도의 삶의 의미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노인의료복지연구*, 10(2), 19-33.
- 김광수 (2020). 만학도의 대학 진학 동기와 변화된 삶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8(1), 257-282.
- 김윤희, 이수진 (2021).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극추구 위험회피 기질과 자율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학회*, 28(6), 229-260.
- 김정민, 최연실 (2014). 50대 만학도 여성의 생애사 연구: 삶의 영역, 전환점과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1), 1-29.
- 민병배, 오현숙, 이주영 (2007). 기질 및 성격 검사 매뉴얼. (주) 마음사랑.
- 박선영, 권석만 (2014).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 및 우울의 관계: 대학생 집단과 중년 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3(3), 549-569.
- 백복희, 최소영 (2024). 중년여성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8(1), 16-27.
- 신준섭, 이영분 (1999). 사회적 지지가 실직자의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7(4), 241-269.
- 안근필, 김문섭, 김진숙 (2021). 중고령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적응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화기술학회지*, 7(3), 255-260.
- 원두리, 김교현, 권선중 (2005). 한국판 삶의 의미척도의 타당화 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11-215.
- 이우리 (2015). 삶의 의미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혜경 (2021). 중년후기 성인의 건강상태, 노화불안, 사회관계망, 생성감 및 행복.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7(4), 392-401.
- 정주리, 이기학 (2007). 의미발견을 통한 의미추구와 주관적 안녕감의 모형 검증: 문제해결 책임감과 긍정적 재해석을 매개로. *상담학연구*, 8(4), 1309-1321.
- 채한, 이수진 (2022). 클로닌저의 생리심리사회모델에서 위험회피-자율성 프로파일에 따른 다면적 정신건강 특성. *동의신경정신의학지*, 3(3), 259-266.
- 최요한 (2018). 주관적 건강은 실제 건강의 좋은 대리변수인가. *노인복지연구*, 73(4), 7-28.
- 최정아, 전혜성 (2020). 중년여성의 삶의 의미와 노화불안과의 관계에서 감사성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28(3), 317-337.
- 통계청 (2024). 주요 연령별 인구 구성비.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 Berk, L. E. (2009). *Development through the lifespan* (5th ed.). Pearson Education.
- Cloninger, C. R., & Gottesman, I. I. (1987). Genetic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antisocial behavior disorders. In S. A. Mednick, T. E.

- Moffitt, & S. A. Stack (Eds.). *Cause of crime: New biological approach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oninger, C. R., Svrakic, D. M., & Przybeck, T. R. (1998). A psychobiolog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The Development of Psychiatry and its Complexity*, 50(12), 1-16.
- Cloninger, C. R., & Zohar, A. H. (2011). Personality and the perception of health and happines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28(1-2), 24-32.
- DeNeve, K. M., & Cooper, H. (1998). The happy personality: A meta-analysis of 137 traits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24, 197-229.
- Diener, E. D.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105-1117.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rikson, E. H. (1968). On the Nature of Psycho-Historical Evidence: In Search of Gandhi. *Daedalus*, 97(3), 695-730.
- Garcia, D., & Moradi, S. (2012). Adolescents' temperament and character: A longitudinal study on happines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An Interdisciplinary Forum on Subjective Well-Being*, 13(5), 931-946.
- Garcia, D., Sagone, E., De Caroli, M. E., & Al Nima, A. (2017). *Italian and Swedish adolescents: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i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erJ*, 5, e2868.
- Goth, K., Cloninger, C. R., & Schmeck, K. (2003). *Das Temperament und Charakter Inventar Kurzversion für Erwachsene-TCI R Kurz*. Klinik für Psychiatrie und Psychotherapie des Kindes- und Jugendalters der J. W. Goethe-Universität Frankfurt.
- Josefsson, K., Cloninger, C. R., Hintsanen, M., Jokela, M., Pulkki-Råback, L., & Keltikangas-Järvinen, L. (2011). Associations of personality profiles with various aspects of well-being: a population-based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33(1-2), 265-273.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4), 719-727.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Minnesota.
- Steger, M. F., Frazier, P., Oishi, S., & Kaler, M. (2006). The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Assessing the presence of and search for meaning in lif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1), 80-93.

- Steger, M. F., Kashdan, T. B., & Oishi, S. (2009). Meaning in life across the life span: Levels and correlates of meaning in life from emerging adulthood to older adulthood.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1), 43-52.
- Subramanian, S. V., Kim, D., & Kawachi, I. (2005). Covariation in the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self rated health and happines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59*(8), 664-669.
- Wester, S. R., Christianson, H. F., Vogel, D. L., & Wei, M. (2007).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social support.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8*(4), 215.
-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1), 30-41.
- 1차원고접수 : 2025. 08. 06.
심사통과접수 : 2025. 09. 12.
최종원고접수 : 2025. 09. 30.

Finding Happiness among the Middle-aged Female Learners: Focusing on Latent Profiles Analysis of Temperament and Character

Jeong Mi Yeo Soo Jin Lee

Kyungshung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categorize the latent classes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through analysis of latent profiles according to the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f middle-aged female learners. To this end, latent profiles analysis was used by subjective health questionnaires, social support, life meaning, subjective well-being, temperament and character on 245 Women aged 40 to 65 living in Busa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wo latent groups(named as adapted and average group) were identified through latent profile analysis using temperament and character factors. Secon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latent groups were identified in psychosocial variables such as subjective health, social support, meaning of life and subjective well-being. These results suggest that mature individuals will have a high level of subjective well-being and its related factors in the given environment and life. Further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of psychological health of female later learner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are discussed.

Key words : middle-aged female learners, temperament and character, subjective health, social support, meaning of life, subjective well-being, latent profiles analysis